

## News

### 저축은행 대출도 '연봉 이내' 제한... '연말까지 적극 영업 못해'

연합뉴스

금감원, 풍선효과 막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에 '가계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할 것 당부... 저축은행들, 올해 대출 영업 확대 어려울 것  
저축은행들,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결정 예고로 중금리 대출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 대출 영업 해와... 올 2분기에만 저축은행 가계부채 2조 5천억원

### 인터넷은행인데 전산 미비? ...카뱅 '황당 전세 대출'

한국경제

카카오뱅크의 전세 대출 이용자들이 추가 대출 받지 못해 곤란... 추가 대출시에도 전입 신고 새로 해야 대출 가능하기 때문  
이용자들의 금리 부담 가능성 높아질 것 지적 제기... 증액된 액수만큼 대출 불가한 경우도 존재... 금감원 측은 '약관은 점검하나 절차 및 추후 문제 관련 점검하지 않는다' 언급

### 고승범 "대환대출 플랫폼, 해결방안 재검토"

디지털타임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해 '시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 해결방안 재검토' 언급  
빅테크 독점 우려 관련해서는,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시장 지배력 확대 이슈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할 필요 있다고 밝혀...

### 금융지주, 유동성관리시스템 구축 '내년 3월까지 완료'

더벨

금융지주들, 그룹 차원 유동성관리시스템 구축 노력... 은행에 치중된 유동성 지표관리를 그룹 내 비은행 계열사로 확대하는 게 핵심  
기준에는 은행에만 관련 규제 도입, 본래 바젤위원회 기준에 따라 지주회사가 도입해야 하는 체계... 금감원, "지주사는 연결 기준 그룹 내 회사들의 LCR 산출 및 현황 파악 필요"

### 한화생명 GA '완전체'로 진화중... "전국단위 인프라 갖출 것"

에너지경제

한화생명, 2분기 자회사형 GA 안정화에 성공하며 향후 대리점 시장에서의 영향력 더욱 확대할 것... 상품의 다양성을 통해 전국적 차원의 규모의 경제 실현  
과거와 달리 보험상품 판매에서 GA의 영향력 커져, 자회사형 GA 역할 중요... 신계약 체결과 고객관리를 통한 보험계약 유지 역시 제반 분리를 통해 크게 향상

### 금감원, 체증형 중신보험 '소비자경보'

파이낸셜뉴스

금감원, 25일 체증형 중신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체증형 중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증가하는 중신보험  
일반 평준형 중신보험보다 비싸다는 점,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할 때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적다는 점 유의할 것 당부

### 한화자산운용, 한화증권 지분 46% 확보... 단독 경영권

데일리안

한화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단독 경영권 확보하기 위해 한화투자증권 지분 26.46%를 약 3,201억원에 인수... 보유 지분 46.08%로 증가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 확보 및 글로벌 비즈니스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 등 신사업 진출 가속화할 목적

### 증권사 '조직체질' 바꾸기... 지점 줄이고 본부 강화

매일경제

증권사들,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로 지점 대폭 줄여... 본부 부서는 대폭 확장 및 임직원 고용 확대  
금투협에 따르면, 2분기 지점 839년, 1년 사이 37곳 감소... 본부 부서는 2394개로 1년만에 12.9% 증가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